

Dorit Croissier - Germany 도리트 크라시에 - 독일











흥으로 마트 탄

정 사각형의 속이 빈 3.5m 높이의 타워는 벽돌과 정토로 만들어 졌다.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통하여 이 타워의 안쪽 부분은 불길에 휩싸였다. 불이 꺼질 때 쯤 자연의 함 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술적인 작품을 보여줄 것이 다. 안 쪽의 모든 벽돌들은 불로 구워져 열과 습기에 일정 기간 견디는 설치작품이 된다.

371: 100 x 100 x 350 cm 재료: 구워지지 않은 벽돌, 시멘트, 쇠막대기

Earth Tower

A square, hollow tower is built with unfired bricks and clay slip. During a performance the inside is blown into flame. The inner parts of the bricks tower is fired at a low temperature to resist wetness and heat for an indeterminent time. During its lifetime, the power of the elements will give the work a complete new view in an unexpected way.

Size: 100 x 100 x 350 cm Material: unfired bricks, cement, iron rods